(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7 (2025. 10.), 164-192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5.10.57.16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

박형대*

1. 들어가는 말

최근 발행된 '다매체 다기능 다음 세대' 한국어 번역 성경인 『새한글』 안에 담긴, 지난 12년 동안 쏟아부어진 많은 분의 수고를 짧은 글 안에 담는 일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 안에 담는 것 같을 것이다. 2012년 12월 중순에 들었던, 어리둥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떠올리니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어들이게 했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여 일한 것이 없어요."(요 4:38)라는 말씀이 필자의 몫이다.

『새한글』 신약의 번역 특징과 실제를 다루기 위해 참고할 자료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반드시 언급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로,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에서 번역 및 수정 과정에서 제작하여 기초번역자에게 배포한 자료들이 한 아름인데, 번역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1] 그 외에도 자료를 작성하고 보내고 받고 공유할 때 사용할 파라텍스트(PARATEXT)라는 '번역자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었다.

둘째로, 2021년 11월 30일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발행된 다음에

* 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hdpark@chongshin.ac.kr. 본 논문은 2025년 4월 8일 영락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구체적인 자료는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8-29를 보라.

나온 논문들이 있다. 이 글들에는 필자가 쓸 말들이 이미 많이 담겨 있다. 가장 발 빠른 반응은 발행 직후에 나온 김주한의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에서 읽을 수 있다. 이어, 반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4월 23일에 "성서 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후속 게재 논문들이 있다. 발표 논문 가운데 다섯 개가 2022년 10월 30일에 발간된 「성경원문연구」 51호에 게재되었고, 발표 논문 가운데 세 개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발표 논문 가운데 두 개는 아직 게재되지 않은 듯하다.[2)]

셋째로, 『새한글』 번역이 시작된 이후에 『새한글』 번역과 관련되어 게재된,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과 글들이다. 그 이전의 글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성경원문연구」에 2012년부터 게재된 논문들이 중요하다.[3)] 한편, 「성경원문연구」 이외의 학술지에 『새한글』과 관련하여 게재한 글로는 김주한의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과, 조지윤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와, 김충연의 "갈라디아서 2:11-4:7의 번역 연구: 『새한글성경』에 따른 형식 일치 번역을 중심으로"가 있다.

넷째로, 2024년 12월 30일에 발간된 「성경원문연구」 제55호 별책이 있다. 여기에는 '기초번역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자신이 기초 번역한 뒤, 많은 수고로 다듬어진 『새한글』 신약 최종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자들이 다섯 개의 예를 골라 '번역 특징', 즉 『새한글』의 특장점을 역본 비교 및 차이점 기술의 방식으로 소개한다. 모두 열세 개의 글이니, 『새한글』 신약의 번역 실제 65개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4)] 참고로, 기초번역자들은 GNT[5],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드물게 『성경』[2005]도), 『새한글』 순으로 나열하여 번역을 비교한다. 예로, 사도행전 7:5의 경우, '발 붙일 만한 땅'은 『개역개정』의, '손바닥만한 땅'은 『새번역』과 『공동개정』, (소개는 하지 않았으나 '한 치의 땅'은 『성경』[2005]), 마지막으로 '한 발바닥만 한 땅'은 『새한글』의 번역이다. 이 자료의 예들은 얇은 별책에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다섯째로, '성경 번역에 꼭 필요한 세 권의 책'인 『성서 속의 물건들』, 『성서 속의 식물들』, 『성서 속의 동물들』이다.[5)] 이 책의 표현들은 『새한글』 곳

2) 구체적인 자료는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9쪽을 보라.
3) 구체적인 자료는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30-33쪽을 보라.
4)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참조.
5) R.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R.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9); R. 쿱스,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R.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London: UBS, 2012); E. R. 호프,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곳에 녹아 있다. 이 책과 관련된 용례도 따로 소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넣을 만한 자료로, <성서의 땅을 찾아서>(*The Bible Lands as Classroom*)라는 DVD 여덟 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주인공은 성경책 자체이다. 2021년 11월 30일에 발행된『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2024년 12월 10일에 발행된『새한글』이다.

2. 연구 방법

필자는『새한글』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를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먼저 '저본'에 대해서는 민경식,[6] 김주한,[7] 이두희,[8] 숄츠(V. Scholz)[9] 등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추가할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문법'에 대해서는 '품사'를 기준으로 '동사,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수사, 감탄사' 순으로 다루면 좋겠지만,[10] 위 논문들에서 주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동사, 접속사 등'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언하는 것으로 '문법' 관련 특징과 실제를 갈음한다.

마지막으로『새한글』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음역, 단어 및 구 번역, 신학 개념 번역,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 번역 이론 대입'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고유명사 음역'은 현재 변화가 심하기에,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은 중요하게 떠오르기에 따로 다룬다. '존대법'은 '번역 이론 대입'에서 다룬다.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E.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5).

6)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36 (2015), 187-205.

7) 김주한, "『새한글성경』신약성경에 관한 고찰",「신약연구」64 (2021. 12.), 729-768; 김주한, "『새한글성경』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개혁논총」60 (2022. 6.), 43-76;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새한글성경』유다서 1:5b 번역",「인문언어」24:2 (2022. 12.), 41-62.

8)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10.), 224-251.

9) 빌슨 숄츠,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28} 및 GNT^{5})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조재천 역,「성경원문연구」53 (2023. 10.), 271-286.

10) '품사'에 대해서는 박형대,『나름 친절한 헬라어 문법책: 헬라어 신약성경 직독직해』(서울: 그리심, 2017) 참조.

3. 『새한글』 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

『새한글』은 특징이 많다.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3.1. 저본[11]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5쪽에 따르면, 『새한글』의 대본은 GNT^{4}와 NTG^{27}이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4일 워크숍 당일에, 때맞춰 출판된 NTG^{28}이 기초번역자들에게 배부되면서 NTG^{28}을 따른다고 공지되었다.

'저본'은 번역의 대본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 최초 번역 성경인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의 저본은 '로스(J. Ross)의 증언, 주기도문, 고유명사 음역'의 측면에서 볼 때, 1881년 '팔머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12] 이후 『구역』의 일부가 된 1906년 『신약젼셔』의 저본도, 비록 '저본의 충실도'가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팔머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3] 『개역』(1938)의 신약 저본은 NTG^{12}로 보인다.[14] 이후의 번역 성경은 머리말에 저본을 밝힌다. 『새번역』의 저본은 GNT^{3}(1983)이고, 『공동개정』의 저본은 GNT^{1}(1966), 『성경』(2005)의 저본은 GNT^{4}(1993)이다.

이 점에서 『새한글』이 NTG^{28}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익숙한 이들은 NTG^{26}(GNT^{3}) 때 비평본의 읽기가 이미 매우 많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NTG^{26}과 NTG^{27}에 보면 '십자가 표시(†)'를 통해 NTG^{25}의 읽기를 제공한다. NTG^{27}의 '십자가 표시'는 768개나 된다.[15] NTG^{28}의 서문에서 NTG^{27}과 다른 곳으로 서른세 표현이 소개되기에, 『개역개정』에 익숙한 독자는 단순 합산으로 계산할 때 『새한글』을 통해 '저본으로 인한 차이점 801곳'을 만나게 된다.

흥미로운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본다. 하나는 구두점과 관련된 예이다. 요

11) '저본' 대신 '번역 대본'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더 자주 쓰는 편이다.

12)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114-115;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젼셔』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83-684;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72-73 참고.

13) 조병수, "『신약젼셔』(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5, 100; 이복우, "『신약젼셔』(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4, 599 참고.

14)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75.

15) Accordance 프로그램으로 검색됨.

한복음 1:3에는 구두점 관련하여 '십자가 표시'가 있다. NTG[26]으로 오면서 마침표가 바뀌어, 요한복음 1:3-4는 '그분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겨난 것은 생명이 있었다.'와 같이 번역될 원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NTG[26] 때부터 구두점이 바뀌었기에, NTG[28]을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했다. 그러나 『새한글』 요한복음 기초번역자는 이전의 구두점 즉, 『개역개정』과 같은 번역을 낳을 구두점을 선호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처음에는 반영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최종 번역을 보니, 이전 구두점이 선택되었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와 같이 번역된 것이다.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새한글』이 '표현된 저본' 즉, NTG[28]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고려 즉, 신학적인 고려까지 반영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1:29-31에 있는 '두 아들 순종' 본문이다. 본래 존 로스의 『예수셩교젼셔』(1887)와 『구역』(1911)에는 '첫째 아들 순종' 본문이었는데, 『개역』(1938)부터 '둘째 아들 순종' 본문이 되었고 이 전통은 현재 『개역개정』에만 남아 있다.[16] 이에 조재형과 김태섭은 『개역개정』 본문을 '첫째 아들 순종 본문'으로 바꿔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17] 이번 『새한글』에는 '첫째 아들 순종'으로 본문이 선택되어 있다.

>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소."

다음 세대 독자들을 고려할 때, 저출산으로 이제 더 이상 '둘째 혹은 다른 아들'이 있기 어려운 시기에 들어섰으므로, '둘째 아들 순종 본문'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새한글』의 저본 특히, NTG[28] 본문 변화와[18] 관련한 연구로는 민경식[19],

---

16) 필자는 칼빈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 차이를 다룰 때 '두 아들 순종 본문'을 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박형대, "칼빈과 우리의 성경본문 차이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47 (2018. 9.), 12-21 참고.

17) 조재형,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들 ― 마태복음 21:29-31의 두 아들 비유에 관한 번역 ―",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2-118; 김태섭,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의 본문 유형과 국문 번역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25-150.

18) NTG[27]과 비교할 때 달라진 곳은 다음과 같다. 약 1:20의 οὐκ ἐργάζεται는 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로, 2:3

김주한[20]의 것이 있다. 민경식은 "아직까지는 28판 공동서신 부분의 변경된 본문에 대한 본문 주석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다.[21] 장동수도 NTG[28]의 새로운 읽기 가운데, "세 곳(약 2:3; 벧전 1:6; 벧후 2:6)에서는 이전 본문(NTG 27판/GNT 4판)이 낫고", "네 곳(벧전 4:16; 벧후 2:18; 요일 5:10, 18)은 ECM/GNT 5판의 본문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22] 숄츠 역시 28판의 선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23] 이 점에서 김주한의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24]와 "유다서 1장 5절에서 달라진 부분의 연구"[25]는 저본과 관련하여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한편, 조재천은 저본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대비평본(2017)이 반영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원문 충실도가 높다고 평가했다.[26]

3.2. 문법

결국 그리스어 문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리스어 문법

의 ἐκεῖ ἢ κάθου는 ἢ κάθου ἐκεῖ로, 2:4의 οὐ διεκρίθητε는 καὶ οὐ διεκρίθητε로, 2:15의 λειπόμενοι는 λειπόμενοι ὡσίν으로, 4:10의 κυρίου는 τοῦ κυρίου로 바뀌었다. 벧전 1:6의 λυπηθέντες는 λυπηθέντας로 바뀌었다. 1:16의 [ὅτι]와 [εἰμι]는 삭제되었다. 2:5의 [τῷ]도 삭제되었다. 4:16의 ὀνόματι는 μέρει로, 5:1의 οὖν은 τούς로 바뀌었고, 5:9의 [τῷ]와 5:10의 [Ἰησοῦ]도 삭제되었다. 벧후 2:6의 ἀσεβέ[σ]ιν은 ἀσεβέιν으로, 2:11의 παρὰ κυρίου는 παρὰ κυρίῳ로, 2:15의 καταλείποντες는 καταλίποντες로, 2:18의 ὀλίγως는 ὄντως로 바뀌었다. 2:20의 [ἡμῶν]은 삭제되었다. 3:6의 δι' ὧν은 δι' ὃν으로, 3:10의 εὑρεθήσεται는 οὐκ εὑρεθήσεται로, 3:16의 ἐπιστολαῖς와 στρεβλοῦσιν은 ταῖς ἐπιστολαῖς와 στρεβλώσουσιν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3:18의 [ἀμήν]은 삭제되었다. 요일 1:7의 δέ는 삭제되었고, 3:7의 τεκνία는 παιδία로, 5:10의 ἐν ἑαυτῷ는 ἐν αὐτῷ로, 5:18의 αὐτόν은 ἑαυτόν으로 바뀌었다. 요이 1:5의 καινὴν γράφων σοι는 γράφων σοι καινήν로, 12절의 πεπληρωμένη ᾖ는 ᾖ πεπληρωμένη로 바뀌었다. 요삼 1:4의 τῇ ἀληθείᾳ는 ἀληθείᾳ로 바뀌었다. 유 1:5의 πάντα ὅτι [ὁ] κύριος ἅπαξ가 ἅπαξ πάντα ὅτι Ἰησοῦς로 바뀌었고, 18절의 [ὅτι]와 [τοῦ]는 삭제되었다.

19)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

21)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

22)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81.

23) 빌슨 숄츠,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28] 및 GNT[5])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24)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43-76.

25)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 41-62.

26)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98-299.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번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3.2.1. 동사

동사 상에 대한 견해가 번역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학자들이 입장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공부하고 온 학자들은 동사 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송승인은 요한복음 3:13의 동사와 관련하여, "그러나 이 동사의 상 이론을 적용한 해석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의 용례를 통해 볼 때 그리 설득력이 없다."라고 평가하여, 동사 상 이론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다.[27] 정창욱이 제안한 요한1서 3:6, 9에 대한 이해 즉, "3:6, 9의 '죄짓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 ἁμαρτάνω의 현재 직설법 동사는 반복적/습관적 동작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28] 이도 최근 유행하는 동사 상 이론의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한글』이 전체적으로 '동사 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장성민은 부정과거를 "외부적인 관점에서 그저 '완결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며, 마가복음 1:11의 부정과거는 '기뻐한다'로, 로마서 5:14의 부정과거는 '다스렸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데,[29] 『새한글』에는 각각 '난 네가 좋아.'와 '지배했습니다.'와 같이 번역하여 반영되어 있다.

동사 상 외에도 동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장성민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긴 것"을 중요하게 평가했다.[30] 정창욱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는 달리 적어도 요한1서에서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한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한다.[31] 그러한 평가와 함께,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똑똑히', 또는 '생생히'와 같은 부사를 첨가하는 방식을" 권하는데,[32] 반영되지는 않았다.

문우일이 '명령형 동사'와 관련하여 제안한 마가복음 4:3의 번역 '들으라,

---

27) 송승인,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18.
28) 정창욱, "요한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225.
29)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연구",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36.
30)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74.
31)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 요한1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06.
32) Ibid.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33]는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를 '숙의적 의문문'으로 해석하여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알겠는가!'와 같이 번역하자는 김주한의 제안[34]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와 같이 참신하게 표현되었다.

3.2.2. 접속사 등

문법과 관련하여 동사와 더불어 다양하게 다뤄진 품사가 접속사이다. 먼저 마가복음 4:12의 ἵνα를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가 문맥적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권영주의 결론[35]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와 같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접속사 번역과 관련하여, 김영인이 고린도전서 5:7과 관련하여 제안한 '때문입니다'[36]는 '때문입니다'로, 디도서 2:13과 관련하여 제안한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37]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영되었다.

접속사 번역 및 생략에 대한 이재현의 제안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예로, 고린도전서 13:13에 대한 '그러나 이제는'[38] 제안은 '그런데 이제는'으로 번역되었고, 로마서 1:16상반에 있는 접속사 γάρ 번역에 대한 제안인 '때문이다'는 '때문입니다'로 번역되었다. 김태섭은 『신약젼셔』(1904)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3:13에 '그런즉'과 'ᄒᆞᆼ샹'이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는데,[39] 『새한글』에는 이 부분이 '그런데 … 남아 있습니다.'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한편, 장해경이 접속사와 관련하여 제안한 '오직' 생략 및 '오히려 혹은 그러나' 추가 제안[40] 가운데, '오직' 생략은 반영되었으나 '접속사 추가'는

33)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59.
34) 김주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21.
35)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65.
36) 김영인,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 고린도전서 5:7의 번역과 해석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45.
37)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디도서 2:13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74.
38) 이재현, "성서 번역에서 접속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81.
39) 김태섭,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61.
40)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94-196.

반영되지 않았다(예. 롬 1:17하).

또한 신현우가 마가복음 4:12와 관련하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은 이 구절에서 ἵνα와 μήποτε를 결과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한 점에서 이 난해한 구절을 용례와 문맥에 부합하게 잘 번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절에서 동족 분사의 사용을 '보고 또 보겠지만'과 '듣고 또 듣겠지만'으로 번역한 부분은 동족 분사를 사용한 칠십인역과 신약성서의 용례에 부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그리하여 그들은 분명히 보더라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확실히 듣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돌이켜 용서받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하지만,[41]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와 같이 표현이 유지되었다.

또한 신현우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고려하여 야고보서 2:18을 "그러나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 없이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이죠,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 드리기도 하지요."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42] 그러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 주세요. 행함을 떼어 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 드릴게요.'"와 같이 번역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서준이 마가복음 10:15의 ὡς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43] 이 제안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3.2.3. 정리

이두희는『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임을 '최신 원

41)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성경원문연구」50 (2022. 4.), 104.
42) 신현우,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 야고보서 2:18과 4:5-6 –",「성경원문연구」47 (2020. 10.), 185.
43) 김서준,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에 대한 고찰 – παιδίον의 의미와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2 (2023. 4.), 72-73.

문을 바탕으로 번역, 원문의 어원, 접두어, 시제를 최대한 살린 번역, 원문의 어순을 살린 번역, 인칭대명사 강조 용법을 살린 번역, 원문의 문학적 갈래와 문체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 원문의 수사적 기법과 신학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으로 설명했다.[44] 장성민도『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문법적 구조, 어원적 특징, 어순이나 대명사의 강조 용법 등을 꼼꼼하게 살펴 원문의 풍부한 의미와 분위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감행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45] 앞서 언급했듯, 조재천도『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원문 충실도'를 높이 평가했다.[46]

그럼에도, 동사 상 이론에 대한 합의와 번역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이 모여 원문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도움이 될 것이다.

3.3. 표현

2012년 12월 14일 워크숍 때 NTG[28]과 함께 제공된 성경이 하나 더 있었다. 독일성서공회에서 2012년에 발행한 BB다.『새한글』이 다매체를 염두에 둔 번역이었기 때문에, 다매체 번역의 선구라 할 수 있는 BB를 보고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이두희는『새한글』의 번역 특징을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전제하에,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 번역(짧은 문장으로 번역, 순차적인 정보 전달), 원문에 충실한 번역,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에 담았다.[47] 민현식은 '우리말 어법'과 관련하여『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특성'을 '어휘론적 의의, 문장론적 의의, 담화론적 의의, 표기론적 의의'로 나눠 설명했다.[48]

『새한글』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 이내의 짧은 문장이 되도록 번역한다는 세부 지침"[49]으로 인해, 에베소서 1:8-9에 대한 최갑종의 번역 제안[50]

---

44)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35-244.
45)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274.
46)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298-299.
47)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33-247.
48)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성경원문연구」51 (2022. 10.), 356-380.
49)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32.
50) 최갑종, "에베소서 1:8-9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1:8하)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4 (2024. 4.), 185.

은 반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3.3.1. 고유명사 음역

『새한글』 신약의 고유명사 음역은 독자적인 원칙을 따른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20-21쪽에 제시된 원칙은 “고유명사와 원어 낱말의 음역은 개역개정판의 전통을 존중하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나 국어사전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음역 표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로 원칙을 따랐다. 이 원칙에는 ‘전통’과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음역 표기’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포함한다.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그리스어 음가’를 연구한 이상일은 고유명사 음역 기준으로 ‘전통’도 중요하지만, ‘칠십인역’과 ‘파열음을 삼항 대립 체계로 표기하는 것’을 중시한다.[51] 이상일의 ‘삼항 대립 체계’를 따르지 않는 박정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에 대해 기존 음역과 더불어 수정을 제안하고,[52] 새로운 표기법도 제안했다.[53] ‘음가’와 ‘전통’, 그리고 ‘국내 표준’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영역이 ‘고유명사 음역’ 부분이다. 참고로, 존 로스는 고유명사를 음역할 때, ‘음가’와 함께 ‘언중’을 고려하여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음역을 통해 억지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54]

음역의 구체적인 예와 관련하여, 전무용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번역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마태복음 1:8의 ‘요람’을 ‘여호람’으로 음역하도록 제안한 것[55]은 반영되었다. 또한 강세현이 마태복음 1:7-8의 배경에 시편 78장을 염두에 두면서 ‘아사’를 ‘아삽’으로 음역할 것을 제안하는데,[56] 논문이 나오기 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고유명사 음역과 관련하여 ‘신구약 통일성’이라는 기준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라면 구약에 나오는 ‘애굽 혹은 이집트’가 있다. 구약 히브리어 성서에는 ‘애굽 혹은 이집트’라는 단어는 없고 ‘미스라임[미쯔라임]’만 있다. 그럼, 왜 구약에 ‘애굽 혹은 이집트’라는 지명이

---

51)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64-165.

52)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89-194.

53)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2) ― 『개역개정』의 개정에 부쳐 ―”,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80-104.

54)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689.

55)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216.

56) 강세현, “마태복음 1:7-8의 ’Ασάφ에 대한 주해와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43.

들어왔는가? 신약에서의 지명이 구약에 대입된 결과이다. '애굽'은 그리스어 Αἴγυπτος의 음역이다. 『개역개정』에는 '미스라임' 용례 682회 가운데 그나마 '미스라임'으로 음역 된 곳이 다섯 군데 있었는데(창 10:6, 13; 50:11; 대상 1:8, 11), 『새한글』에는 '신구약 통일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미스라임은 창세기 50:11의 '아벨미스라임'에만 남았다.

한편, 『새한글』에서는 음역과 번역을 병행하기도 한다. 예로, 사도행전 28:15의 '트레이스 타베르나이(세 여관)'가 있다. 참신한 시도로 보인다.

3.3.2. 단어 및 구 번역

조지윤이 '레프라(λέπρα)' 및 '레프로스(λεπρός)'와 관련하여 '심한피부병' 및 '심한피부병을 앓는 사람'으로 제안한 번역[57]은 반영되었다. 이두희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58] 이 누가복음 18:22에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요한복음 21:25의 οἶμαι를 "'생각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선욱의 제안[59]도 '생각하기에는'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었다. 최영숙의 바울의 '자랑 모티브' 및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에 대한 제안[60]도 고린도전서 1:31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과 고린도후서 10:17('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에 반영되었다.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를 '붙잡힘'이 아니라 '내어진, 혹은 넘겨진'으로 번역하자는 제안[61]은 '넘겨지시던'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박찬웅이 마가복음 8:25와 관련하여 '눈을 다시 뜨다,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온전해지다'로 제안한 번역[62]은 '다시 보게 되어, 또렷이 보게 되었다,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한철흠이 요한계시록 3:10의 τηρεῖν ἐκ가 "시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함, 즉 시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63]도

57) 조지윤,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116.

58) 이두희, "누가복음 18:22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88-111.

59) 김선욱, "요한복음 21:24-25에 나타난 인칭 변화 연구와 οἶμαι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19.

60) 최영숙,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의 새 번역과 바울의 '자랑' 모티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84-102.

61)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64.

62) 박찬웅, "벳새다 맹인 단락(막 8:22-26)의 '보다' 관련 동사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18.

63)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 τηρεῖν ἐκ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 주겠다.’와 같이 잘 반영되었다. 이달이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를 ‘전염병으로써’로 번역하자는 제안[64]도 ‘생명을 앗아 가는 병으로’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φόβος를 ‘무서움, 공포’의 의미로 표현하자는 정창욱의 제안[65]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안된 구절 모두에 ‘두려움’ 혹은 ‘두려워하다’가 번역에 사용되었다. 송승인이 요한복음 3:13의 εἰ μή를 ‘외에는’보다는 ‘그러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66]도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라고 ‘외에는’과 유사하게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이승현이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를 “(1) ‘여인은 그 머리를 향한 자유/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혹은 (2) ‘여인은 그 머리를 통제해야 합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67]도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68] 갈라디아서 1:6-7의 ἕτερον과 ἄλλο를 ‘전혀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호형의 제안[69]도 둘 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빌립보서 3:20에 딱 한 번 나오는 πολίτευμα에 대한 윤철원의 제안(“시민권 보다는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는 ‘[천상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70]도 반영되지 않고 ‘시민권’으로 번역되었다. 김선욱이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를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제멋대로’가 아니라 ‘게으르고 거역하는’으로 번역하자는 제안[71]은 ‘제멋대로’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2:13의 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 피조물’을 의미한다는 조호형의 주

연구」48 (2021. 4.), 183.

64) 이달,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34 (2014. 4.), 181-202.

65)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35 (2014. 10.), 195-217.

66) 송승인,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119.

67) 이승현,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50 별책 (2022. 8.), 129.

68) 고전 11:10과 관련하여, 황영자(『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고린도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8], 105)는 “여자는 그녀의 원천인 남자에게 권위를 가져 마땅하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69) 조호형, “갈라디아서 1:6-7에 나타난 ‘다른’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53 (2023. 10.), 177.

70) 윤철원, “빌립보서의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인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31 (2012. 10.), 127.

71) 김선욱,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에 대한 문맥적 이해와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39 (2016. 10.), 243.

장[72]도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이 요한계시록 14:6의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을 '영원한 심판의 복음'과 같이 번역하자는 제안[73]도 '좋은 소식으로 전할 복음'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배재욱이 요한계시록 21:3에서 '백성들'로 번역하고 1:14상반에서 '그러나 그의 머리, 곧 그 머리털은'으로 번역하자는 제안[74]도 반영되지 않았다. 21:3은 '백성'으로, 1:14상반은 '머리와 머리카락은'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정창욱이 요한1서 4:13의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성령으로부터'로 보고 ὅτι를 '이유를 표현하는 접속사'로 봐야 하기에,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자는 제안[75]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로 번역되어 절반만 반영되었다.

3.3.3. 신학 개념 번역

박정수가 '제2성전기 유대교의 구원관'을 반영하여 마태복음 19:16을 '내게 영생이 있으리이까' 혹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으로 번역하자는 제안[76]은 '얻겠습니까'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가복음 10:17과 관련하여 제안한 '영생을 상속하리이까(유업으로 받으리이까)'와 누가복음 18:18(또한 10:25)과 관련하여 제안한 '상속하려면(유업으로 받으려면)'[77]은 '받아 누리겠습니까'와 같은 표현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를 받아들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단어가 다르기에 달리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최갑종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와 관련하여 "목적 속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

---

72) 조호형, "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에 대한 재고 – 베드로전서 2:13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44.

73) 이달,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53.

74) 배재욱, "요한계시록 1:14상반절과 21:3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42-144.

75) 정창욱, "요한1서 4:1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210-211.

76) 박정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의 번역 문제(마 19:16; 막 10:17; 눅 18:18; 10:25)",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50.

77) Ibid.

라고 제안하였다.[78] 이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롬 3:22), '예수님을 믿는 믿음'(롬 3:26)과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승현이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에 기초하여'도 좋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기인하여'로 번역하기를 제안한 것과, 갈라디아서 3:26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79]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한편, 정창욱이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80]에서 '하나님 예배자/경배자'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으로, '하나님 경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장해경이 바울의 '칭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안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써'[81]는 칭의 문맥 내에서 '믿음에 기초하여'(롬 5:1; 갈 2:16하; 3:11; 빌 3:9하)로 번역되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디도서 3:5가 증언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민경식의 번역 제안인 '그가 중생과 갱신의 성령세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문자적 번역)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씻어주심으로써 구원하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기능적 번역)[82]는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 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하셨지'와 같이 참신하게 반영되었다.

김서준은 바울의 '속죄'와 '화해' 개념과 관련하여, 로마서 3:25의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이 '죄를 덮는 제물, 진노의 심판을 막는 제물'을 의미한다며, "'속죄'와 '화목'이라는 번역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았는데[83], 『새한글』 로마서 3:25는 '죄덮는제물(화목제물)'과 같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한다.

바울서신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한 이재현의 제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로[84], 로마서 1:28에서 '지식'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인정하는 것'으로 번역했고, 12:11에서 '[성령으로 인한] 열정으로'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으나 '마음이 뜨거워져서'로 번역했고, 12:16에서 '같은 생각,

78) 최갑종,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66.
79) 이승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46-347.
80)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0.), 188.
81)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193.
82) 민경식, "디도서 3:5하반절에 대한 고찰과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16-117.
83) 김서준, "바울서신의 '속죄'와 '화해'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ἱ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19-120.
84) 이재현, "바울 서신의 '마음' 번역에 대한 제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의미론과 신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51.

교만한 생각'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같은 마음, 주제넘은 생각'으로 번역했고, 14:15에서 '당신의 형제가 슬퍼하게 된다면'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했으나 '그대의 형제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으로 번역했다. 다만, 15:26, 27에서 '기뻐했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은 각각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와 같이 번역하여 반영한 게 되었다.

김홍석은 신약성경에 쓰인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을 '실재'로 보고 '실상'(고후 9:4; 히 11:1), '실재'(고후 11:17; 히 1:3상; 3:14)로의 번역을 제안했다.[85] 그의 제안은, '확신 있게 자랑한 일'(고후 9:4), '일'(고후 11:17), '믿음의 근거'(히 3:14), '현실'(히 11:1), '실상'(히 1:3상)과 같이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김영인이 '인도자'로 일관성 있게 번역할 것을 제안한 ἀρχηγός[86]는 '창시자'(행 3:15; 히 2:10하), '지도자'(행 5:31하), '이끌어 들이시[는 분]'(히 12:2상)과 같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30에 쓰인 κρίνοντες의 개념을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통치'로 해석하여 번역하자는 김태섭의 제안[87]은 '심판하고'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가 '의롭다고 하심'이나 '무죄 선언'이 아니라 '의인의 지위를 얻음'이라는 김서준의 주장[88]은 '무죄 선언'으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김두석이 로마서 14:1-2의 πίστις가 "'믿음'이 아닌 '확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과 "로마서 15:1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할 수 있는/가능한 우리' 혹은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89]은 각각 '믿음'과 '우리 강한 사람들'로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구원 관련 개념'인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구원 상태'로 번역하자는 이재현의 제안[90]은 반영되지 않았다. '석방'으로 번역되고, "또는 '구원으로'"가 각주로 추가되었다. 김의창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고린도전서 15:45를 '살아 있는 육신이 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는 번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91] 수정되지 않았다.

---

85) 김홍석,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59-169.
86)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55.
87) 김태섭,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해석",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2.
88) 김서준,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 용어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44.
89)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68.
90)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4.), 175.
91) 김의창,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 '살아 있는 육신'인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인 그리스도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94.

3.3.4. 장애 및 여성 관련 번역

채은하가 제안한 '장애인 관련 표현'[92]은 반영되었다. 예로,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93]이 사용되었다. 한편, 치유된 이들에 대해서는 채은하의 제안에서 더 나아가 '못 듣던 사람들, 말 못하던 사람들'(막 7:37)이라고까지 번역되었다.

김형동은 γύναι가 "혈연이나 애정을 담아내는 표현이 아니라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가리킨다."라면서, 요한복음의 "γύναι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의미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94] 이러한 입장은 안창선에게서도 발견된다. 안창선은 γύναι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도, '자매님'으로 번역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95]

그러나 조지윤은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른 호칭을 '어머니'로 번역한 것은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보았다.[96]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마 15:28), '척추장애인 여자'(눅 13:2), '사마리아 여자'(요 4:21),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다가 붙잡힌 여자'(요 8:10), '막달라 마리아'(요 20:15)를 이 호칭으로 부른 것을 '자매님'으로 번역한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귀나이'로 부른 여자들을 존중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내시며, 대화자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력 있게 하신다."라고 지지한다.[97] 조지윤의 입장은 임성욱의 지지를 받는다.[98] 그러나, 임성욱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경우, 예수는 결코 여성에게 이상적인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한다.[99]

한편, 박성호가 디모데전서 2:15를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통과하여/거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다.[100] 그런데 그의 제안은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와 같이 번역되어, 충분

92)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62-180.

93)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174.

94) 김형동,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36.

95) 안창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13-314.

96) 조지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 「한국여성신학」 98 (2023), 161.

97) Ibid., 161-162.

98)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82-193.

99) Ibid., 193-194.

100) 박성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15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75-176.

히 반영되지는 않았다.[101]

3.3.5. 번역 이론 대입

『새한글』에서 가장 낯선 부분은 『개역개정』과의 문체 차이일 수 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원칙 해설"(2012년 11월 1일), 7쪽에는 "옛 문체를 쓰지 않고 현대 한국어체인 '-다' 체를 기본 문체로 하되, 필요할 때는 '-ㅂ니다' 체도 쓴다."라고 하였고, 13쪽에는 "대화문과 인용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며, 한국어 어법에 맞는 존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원칙이 제시된다. 이 외에도 14쪽에서는 "부활 이전의 예수께서 대중에게 하신 말씀은 '-ㅂ니다' 체인 격식체 문장으로 끝맺는다."라고 원칙을 제시한다.

국어와 신학을 함께 공부한 박덕유는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화계 사용에 대한 기본 얼개를 제시한다.[102]

> 우선, 제자들과의 화계는 아무래도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격식성이 가장 강한 '해라체↔하십시오체'가 적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따라서 육체적 병마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이들에게 격식 있는 '해라↔하십시오'보다는 '하오↔하십시오'나, 친근감을 주는 '해요↔하십시오'가 더 좋을 듯싶다. 그리고 주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십시오↔하십시오'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라체'보다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므로 '하십시오체'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백부장이나 삭개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시몬, 마[태] 등에게는 '하오↔하십시오'가 무난할 것이다.[103]

물론, 그의 제안 가운데 다르게 적용된 것들도 있다. 예로,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대화에 대해 '해라↔하오'를 제안했으나,[104] '-다↔하오'로 번역되었다. 예로, 마태복음 4:3-4를 보자.

---

101) 이 구절에 대해서는 황영자, 『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창세기,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7), 161-208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황영자는 "그 해산함으로, 한 아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102)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83-109.

103) Ibid., 105.

104) Ibid., 104.

>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편, 전혜영은 한국어 사용자의 사동문 이해에 근거하여 주기도문에 있는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105] 그런데 마태복음 6:13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와 같이 반영되었다.

수사의문문을 '진술문으로 변형'하여 번역할 수 있다는 엘링워스(P. Ellingworth)의 제안[106]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로, 요한복음 4:35는 '않나요?'로, 6:70은 '않았나요?'로, 7:42도 '않았나요?'와 같이 수사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소모프(A. Somov)가 인지언어학에 기초하여 제안한 누가복음 16:23에 대한 제안[107]은 '자기 눈을 들어, …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와 같이 반영되었다.

'문맥적 읽기'에 근거하여 양재훈이 '탕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제안한 세 가지 가운데 즉, '종노릇하다', '원래 입던 옷', '처분하다' 가운데,[108] '종노릇하다'만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로 반영되고, 나머지는 '제일 좋은 예복, 다 모아'와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LXX를 반영하여 히브리서 12:15를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위로 돋아나서 혼란을 일으키거나'로 번역하자는 조재천의 제안[109]을, LXX의 표현은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로 번역하여 참신하게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고대 천문학의 언어를 반영하여 현우식이 마태복음 2:9를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동틀 녘에 떠오르는 별이, 천문학자들 앞에서 역행 운동을 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서 정지 운동을 하였다'와 같이 번역하자는 제안을 했는데,[110]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

105) 전혜영,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88-306.

106) P. 엘링워스, "수사의문문의 번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달 역,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55-167.

107) A. Somov, "'He Lifted Up His Eyes': Translating Luke 16:23 in the Context of Cognitive Interpretation",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291-309.

108) 양재훈, "문맥적 읽기와 성서 번역: '탕자들의 비유'(눅 15:11-32)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194-196.

109) 조재천, "상호본문성을 반영하는 성서 번역: 히브리서 12:15하의 우리말 번역과 표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62.

110) 현우식, "고대 천문학의 언어로 읽는 마태복음 2:9",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31.

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와 같이 번역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4. 나가는 말

『새한글』 신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를 하나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그간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연구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참신하게 반영된 것도 있고, 절반만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성경원문연구」에 다양한 색채의 글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새한글』이 '저본, 문법, 표현'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맞이하면 한국어 번역 성경이 점점 더 발전할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 『새한글』의 신약 번역, 『새한글』의 신약 저본, 『새한글』의 신약 문법, 『새한글』의 신약 표현.

The New Korean Translation, NT translation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NT script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Greek grammar considered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NT expression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BasisBibel: Das Neue Testament und die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Novum Testamentum Graece, 26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org. ed. 1979.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ised ed., 3rd corrected printi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The Greek New Testament, 1st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6.

The Greek New Testament, 3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The Greek New Testament, 5th revise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강세현, “마태복음 1:7-8의 ’Ασάφ에 대한 주해와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27-47.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51-169.

김두석,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48-171.

김서준,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25-147.

김서준,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에 대한 고찰 ― παιδίον의 의미와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54-80.

김서준, “바울서신의 ‘속죄’와 ‘화해’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ἱλαστήριον과 καταλλαγή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98-130.
김선욱, “데살로니가후서 3:6, 11의 ἀτάκτως에 대한 문맥적 이해와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23-247.
김선욱, “요한복음 21:24-25에 나타난 인칭 변화 연구와 οἶμαι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98-126.
김영인,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 고린도전서 5:7의 번역과 해석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31-148.
김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서술어인가?: 디도서 2:13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60-178.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40-160.
김의창, “고린도전서 15:45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제안 ― ‘살아 있는 육신’인 아담과 ‘살려 주는 영’인 그리스도 ―”, 「성경원문연구」 52 (2023. 4.), 81-100.
김주한, “번역 대본과 번역자: 『새한글성경』 유다서 1:5b 번역”, 「인문언어」 24:2 (2022. 12.), 41-62.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개혁논총」 60 (2022. 6.), 43-76.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64 (2021. 12.), 729-768.
김주한, “요한복음 7:15의 분사구 μὴ μεμαθηκώς의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10-127.
김충연, “갈라디아서 2:11-4:7의 번역 연구: 『새한글성경』에 따른 형식 일치 번역을 중심으로”, 「신약과 세계」 105 (2023), 45-78.
김태섭,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49-167.
김태섭,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의 본문 유형과 국문 번역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25-150.
김태섭, “마태복음 19:28의 κρίνοντες에 대한 해석”, 「성경원문연구」 36 (2015), 165-186.
김형동,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23-140.
김홍석,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51-175.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 12.).

문우일,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53-159.
민경식,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7-205.
민경식, “디도서 3:5하반절에 대한 고찰과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03-120.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83-109.
박성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15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62-186.
박정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의 번역 문제(마 19:16; 막 10:17; 눅 18:18; 10:25)”,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34-53.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170-200.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2) ― 『개역개정』의 개정에 부쳐 ―”,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80-104.
박찬웅, “벳새다 맹인 단락(막 8:22-26)의 ‘보다’ 관련 동사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100-122.
박형대, 『나름 친절한 헬라어 문법책: 헬라어 신약성경 직독직해』, 원어성경을 읽고픈 그대를 위한 책 하나, 서울: 그리심, 2017.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젼셔』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32 (2013), 677-705.
박형대, “칼빈과 우리의 성경본문 차이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47 (2018. 9.), 9-38.
배재욱, “요한계시록 1:14상반절과 21:3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39-146.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2025. 4. 8.
송승인,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07-122.
숄츠, 빌슨,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28] 및 GNT[5])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조재천 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271-286.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 「성경원문연

구」 50 (2022. 4.), 87-106.
신현우, “야고보서 난해 구절 번역 ― 야고보서 2:18과 4:5-6 ―”,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168-190.
안창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04-326.
양재훈, “문맥적 읽기와 성서 번역: ‘탕자들의 비유’(눅 15:11-32)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183-202.
엘링워스, P., “수사의문문의 번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달 역, 「성경원문연구」 33 (2013. 10.), 155-167.
윤철원, “빌립보서의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인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12-133.
이달,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81-202.
이달,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134-157.
이두희, “누가복음 18:22의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번역에 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10.), 88-111.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24-251.
이복우, “『신약젼셔』(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연구”, 「신학정론」 30:2 (2012), 571-600.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 ―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51-170.
이승현,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9-129.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 45-67.
이승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27-352.
이재현, “바울 서신의 ‘마음’ 번역에 대한 제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의미론과 신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37-161.
이재현,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4.), 159-184.
이재현, “성서 번역에서 접속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78-187.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69-202.
장동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전서』 5판의 본문 변화들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66-287.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연구”,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10-244.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52-279.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2.), 188-196.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96-221.
전혜영,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88-306.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65-92.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0.), 195-217.
정창욱,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10.), 173-192.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 요한1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89-209.
정창욱, “요한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10.), 206-227.
정창욱, “요한1서 4:13의 번역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196-213.
조병수, “『신약젼셔』(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83-104.
조재천, “상호본문성을 반영하는 성서 번역: 히브리서 12:15하의 우리말 번역과 표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0.), 248-265.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80-303.
조재형,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들 — 마태복음 21:29-31의 두 아들 비유에 관한 번역 —”,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8.), 112-118.
조지윤,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

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94-121.

조지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 「한국여성신학」 98 (2023), 160-163.

조호형, "πᾶσα ἀνθρωπίνη κτίσις에 대한 재고 ― 베드로전서 2:13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성경원문연구」 46 (2020. 4.), 127-150.

조호형, "갈라디아서 1:6-7에 나타난 '다른'에 대한 재고",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61-184.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4.), 162-180.

최갑종,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141-173.

최갑종, "에베소서 1:8-9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1:8하)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72-188.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Canon&Culture」 8 (2010), 99-132.

최영숙, "καυχᾶσθαι ἐν τινι의 새 번역과 바울의 '자랑' 모티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84-102.

쿱스, R.,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London: UBS, 2012.

프리츠, R.,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Ray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9.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 τηρεῖν ἐκ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76-195.

현우식, "고대 천문학의 언어로 읽는 마태복음 2:9",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117-136.

호프, E. R.,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London: UBS, 2005.

황영자,『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고린도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8.

황영자,『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창세기,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의 남녀관』, 신학총서, 서울: 헵시바총신여동문, 2017.

Somov, A., "'He Lifted Up His Eyes': Translating Luke 16:23 in the Context of Cognitive Interpretation",「성경원문연구」35 (2014. 10.), 291-309.

<Abstract>

Some Characteristics and Realities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ion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In Concentration of Critical Editions, Grammars and Expressions

Hyung Dae Par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analyses the New Korean Translation in terms of critical editions, grammars and expressions. Beforehand, it introduces important references in five areas: (1) material for translators, (2) articles evaluating the New Korean Translation New Testament and Psalms published in 2021, (3) related articles, (4) New Testament translation examples, and (5) references to the Bible translation.

Some characteristics and realities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ion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are examined by three points: (1) critical editions, (2) grammars, and (3) expressions. The Palmer edition published in Oxford in 1881 had been employed as the original text not only of the team led by John Ross that produced *Yesushunggyo Lukabogumjunshe* (1882) and *Yesushunggyojunshe* (1887), but also of the team that produced the 1911 Korean edition, namely the Old Translation. The Nestle-Aland critical editions have become important to Korean translations from 1938 to the present. The New Korean Translation i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that used the 28th Nestle-Aland edition and the fifth UBS one.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the script by two examples, the position of the period in John 1:3 and in the parable of two obedient and disobedient sons in Matthew 21:29-31.

In relation to grammar, the writer first expresses that it is hard for translators to have a consensus on Greek Grammars especially on verbal aspect theories. Then, on the basis of those previous assessments and related articles, he admits that the New Korean Translation is a result of a consideration of Greek grammars, and he hopes that Korean translators come to a consensus on the Greek grammars and apply it to further works of translation.

The part of expressions would be the most essential one in evaluating the New Korean Translation, so it is dealt with in five parts: (1) transliteration of proper

nouns, (2) translation of words and phrases, (3) translation of theological concepts, (4) translation of disability and the feminine, and (5) application of translation theories. The transliteration of proper nouns has been fixed after each letter's pronunciation by previous transliterations and the basic principle in Korean public education environments. The transl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of theological concepts are more developed. The translation of disability and the feminine,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nflict, has become more polished. Lastly, the New Korean Translation i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many translation theories.

These feature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point to the bright future of Korean Bible translations.